

'페스티로폴 회수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

- 한국부인회 주최, '페스티로폴 재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

정 부의 페스티로폴 재활용 가능 품목 지정과 발을 맞추어 한국부인회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페스티로폴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22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 지자체, 학계, 소비자단체, 기업이 참여한 페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경기전문대 민달기 교수는 우선 스티로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티로폼 제조시에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각하면 탄산가스와 수증기만 생성된다. 스티로폼은 소중한 재생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페스티로폴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대량 배출업소는 감용기를 설치 자체 감용하고 유통점은 역루트 회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인근에서 감용하는 설비 구축 등 회수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한국부인회 김영선 실장은 서울주민 400명, 경기도 거주민 300명 등 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티로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스티로폼의 재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55.8%인 391명이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스티로폼이 분리수거 품목이 되는 것에 대해 93.3%인 653명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스티로폼이 분리수거 품목이 될 경우도 응답자중 89.7%인 628명이 분리수거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스티로폼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분리수거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신충식 사무관의 페스티로폴 재활용 추진계획,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정수용 과장의 96년도 페스티로폴 분리과 재활용 추

진방안이 발표됐으며 페스티로폴 분리수거 모범기관으로 오산시와 삼성전자가 사례발표를 했다.

오산시의 경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동시에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확대지정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연간 약 1천4백8십7만4천원의 청소사업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2천8백7십8만7천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 페스티로폴 처리 실적(오산시) '95.11.15기준(단위:톤)

구 분	수거량	처리량		미처리량
		소 계	소각/타	
배출된 부피기준	1,046.5	1,040.5	840.5	200
인고트 무게기준 (판매금액)	20.93	20.81	16.81 (3,762천원)	4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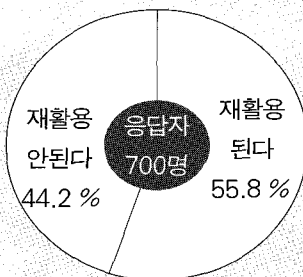
2. 경제효과(오산시) '95.11.15기준(단위: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수입효과	인고트 판매수익	3,762	-16.81톤×223,780원/톤
	매립 처리비 절감	41,604	
	소계	45,366	
투입비용	봉투판매 수익감소	25,215	
	감용기 운영비용	5,277	
	소계	30,492	
순수효과		14,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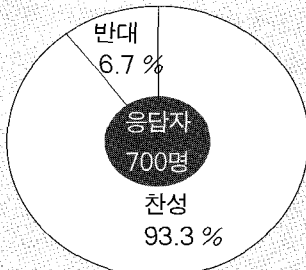
3. 주민 봉투구입비 절감액(오산시)

인고트 840.5톤×1,000kg÷40kg(100 l 당)×1,370원
= 28,787천원

■ 재활용 가능 인지 여부



■ 분리수거 품목지정 찬성 여부



■ 분리수거 하겠는가?

